

의 다른 저작들을 살피는 것을 통해 학계의 대략적인 논의를 엿볼 수 있다. 결국 다양한 각도에서 주제를 살핌으로써 특정 주제와 관련한 입장들의 장단점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는 이해에 더욱 유용하다. 이와 같은 접근은 앞서 언급한 평소의 자료 정리와 더불어, 사안에 관한 자신만의 입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5. 나가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공 공부를 한다면, 교수님들의 강의 또한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것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의 이해에 도움이 될뿐더러 해당 과목의 보고서 및 시험 같은 다양한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것들은 단기간의 짧은 노력만으로 이루기는 어렵기에 자신의 전공에 대한 흥미와 애정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겠다.



어떤 책이든 좋다

● ● ●
이 상 원
서울대 기초교육원
인문학글쓰기 강의교수

‘물’이라는 한 단어를 제대로 발음하고 그 뜻을 알고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되기까지 아이는 무수한 연습을 거친다. 그리고 그 옆에는 ‘물’이라는 한 단어를 지치지 않고 발음해 들려주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시범을 보여주는 누군가(대개는 엄마가) 있다.

글쓰기를 배우는 과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이 쓴 문장과 표현을 읽고 흉내 내면서 글쓰기 연습을 시작한다. 한 편의 글로 내 생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는지도 남들이 쓴 글을 통해 배운다. 특정 형식을 요구하는 글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형식을 갖춘 다른 글들을 찾아 살펴보면서 방법을 익힌다. 그리하여 글쓰기를 가르쳐주는 엄마는 남들이 쓴 글, 더 나아가 남들이 쓴 책이 된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하면 어떤 책이든 글쓰기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책이라는 글쓰기가 때로는 모범으로, 때로는 타산지석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니 글쓰기를 잘 하기 위해 특별한 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부담은 버려도 된다. 지금 읽고 있는 책, 혹은 지금 눈앞에 놓인 책이 바로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책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글쓰기는 생각하기와 표현하기로 크게 나뉜다. 생각만 하고 글로 표현하지 않으면 당연히 글이라는 결과물은 나오지 않는다. 또 생각은 하지 않고 표현만 하는 일도 상상하기 어렵다. 생각 없이 표현하기란 아예 불가능해 보인다. 혹시나 어찌어찌 표현을 짜냈다 해도 이런 글은 이해하거나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책 읽기는 생각하기와 표현하기 양쪽 모두에 유익하게 작용한다.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된다. 글쓴이가 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나는 글쓴이 의견에 동의할 수 있는가? 이번 책 읽기를 통해 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 모든 생각이 글감이 된다.

또한 책 읽기 과정에서 우리는 표현하기를 배운다. 읽어나가는 중에 가슴에 꽂히는 한 문장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나온다면 왜 그런지,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고민해볼 수 있다. 글쓰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큰 그림을 살펴보기도 한다. 이 모두가 내가 생각을 표현할 때 지침으로 삼을 만하다.

내가 최근에 읽은 책 두 권도 이런 사례가 된다. 첫 번째 책은 『진정성이라는 거짓말』(앤드류 포터, 마티 출판사, 2010)이다. 이 책은 ‘진짜 옛날’ 방식을 찾는 사람들을 비판한다. 예전에는 소외나 계산적인 인간관계가 없다고 믿는 이들, 유기농만이 진정한 먹거리라고 여기는 이들 말이다. 글쓰이는 이런 경향이 근대가 안겨준 불안감 때문이라고 본다. 가치관과 생활방식이 모두 정해져 있던 시대를 벗어나 스스로 의미를 찾게 된 근대 이후 사람들은 불안감에 시달리며 과거를 모두 진짜라고 여기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진짜’를 추구하는 것이 대중 소비나 대중 문화를 벗어났다는 우월감으로 변질된다고도 비판한다.

개인적으로 ‘진정한 진짜’에 대한 추구라는 것은 지금까지 제대로 생각해본 적 없는 새로운 주제였다. 이 주제 하에 예술, 주거, 정치, 관광, 종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한데 모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은 무척 인상적이었는데 이걸 ‘진정한 진짜’라는 개념이 지닌 통찰력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영역 별로 ‘진정한 진짜’의 구체적인 개념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아쉬움은 남았다. 예를 들어 대량생산 이전 시대의 진정한 먹거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기농 열풍을 정치인들이 부르짖는 진정성과 하나로 묶기에는 무리가 있다. 캐나다와 미국을 주된 배경으로 삼아 쓰인 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한국에도 그대로 유효한 주장일까 궁금해졌다. 근대 이전 삶에 대한 향수는 우리에게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 현재 우리 삶이 예전에 비해 훨씬 나은 모습이라는 확신이 보다 강력하기 때문인 듯하다. 이 확신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새로이 고민할 만하다.

최근에 읽은 또 다른 책은 『호모데우스』(유발 하라리, 김영사, 2017)이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파고들면서 늘 당연하다 여겨온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는 책이다. 머릿속으로 상상하여 만들어낸 이야기를 믿는 인간의 특징 때문에 돈이나 종교, 더 나아가 국가가 유지된다거나 인본주의라는 것이 실은 자발적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병사나 일터로 나갈 노동자가 필요했던 시대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그렇다.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이 눈부시게 발전할 미래에는 인간 개개인에게 별다른 가치나 의미가 부여되기 어렵다는 예측도 나온다.

알파고 이후 인공지능의 발전이 모두에게 분명히 감지되면서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이 책은 딱 냉정하고 사뭇 비관적이다. 어쩐지 인류의 생존을 옹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책을 읽으면서 계속 반박 내용을 궁리해 보았지



만 쉽지 않았다. 인공지능 앞에서 인간은 결국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존재일 뿐일까. 이는 계속 고민해야 할 화두로 남았다.

두 책의 표현 면에서는 소제목이 아쉬웠다. 『진정성이라는 거짓말』은 장별 소제목이 체계적으로 서로 연결되지 않아(예를 들어 ‘진정성 있는 세계 한 표를’이라는 6장 소제목이나 ‘문화는 관광객용’이라는 7장 소제목은 해당 장의 내용을 포괄하지도 못하고 명사로 끝난 다른 장들 소제목과도 통일성이 없다.) 목차를 보면서 전체 그림을 그리기 어려웠고 『호모데우스』는 5백 쪽이 넘는 분량이 겨우 11개 장으로 구획된 상황에서 장별 소제목이 너무도 소략했다.

흥미롭게도 두 책 모두에 글쓰기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 등장했다. 『진정성이라는 거짓말』의 5장 ‘투명성의 위협’에서는 표절 문제가 다뤄진다. 대학생들의 표절이 늘어난 것은 정직성이라는 덕목이 경시되는 세태 때문이라기보다는 (표절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 발전이 부추긴 게임의 결과라고 소개된다. 일방향이 읽기 전용 문화가 인터넷과 각종 콘텐츠 제작 기술 덕분에 양방향의 읽기/쓰기 문화로 변동되었다는 흥미로운 이론도 소개한다. 한편 『호모데우스』는 호모사피엔스의 문명 발전을 다루면서 문자의 발명을 중요한 계기로 꼽는다. 문자는 인간 뇌의 데이터 처리 한계를 넘어서게 해 주었고 그 덕분에 경제, 사회, 문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호모데우스』라는 책도, 오늘 우리가 하는 글쓰기도 5천년 전 수메르인에서 시작된 기록의 역사에서 이어져 온 결과이니 새삼 경이롭다.

최근에 읽은 이 두 책은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 데, 그리고 앞으로 생각과 표현을 계속 해나가는 데 ‘엄마’가 되어 주었다. 앞으로 내가 읽게 될 모든 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